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물오른 코믹연기에 존재감 반짝반짝~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신혁 역 최시원

아는 사람은 알았다. 그가 얼마나 웃긴 캐릭터인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게 결코 아니다. 그는 원래부터 웃겼다. 끊임없이 웃음을 추구하고, 탐구했고, 실험했다. 현현장부 외에도 세계를 들쭉이게 하는 K팝 스타라는 점에 쉽게 묻혀버린 것이지 코미디와 개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를 저축해 '텐 텐'을 외치고 있다. 10집 만점이다. MBC TV '그녀는 예뻤다'의 최시원(28)이 그동안 갖고 있던 코미디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순간이 개그의 연속인데, 단 한순간도 어색하지 않다. '무한도전'의 '식스맨' 프로젝트에 도전했을 때도 알아봤지만 '그녀는 예뻤다'의 최시원을 보고 싶었다면 물이 올라도 제대로 올랐다. 게다가 코미디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반으로 접어들어 드라마에서 그는 진지한 감정 연기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때를 만났는데 그는 이 드라마를 끝으로 다음달 의무경찰로 입대한다. 군 복무를 마치고는 더 멋진 연기를 보여줄까. ◇'포춘 쿠키' 최시원, 원래 웃겼다='그녀는 예뻤다'에서 그가 연기하는 김신혁은 '뽕기자'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는 캐릭터다. 패션지 기자인데, 주인공 김해진(황정음 분)을 호시탐탐 골라먹지 못해 안달이 난 그는 영리없는 '뽕기자'다. 최시원이 펼치는 장난기 넘치는 연기는 할리우드 슬랩스틱 코미디의 달인 짐 캐리 저리 가라. 오만가지 강렬한 표정에 현란한 '송중이 눈썹 연기', 랩을 하듯 빠르면서도 정확한 속사포 대사 처리, 장난치는데 인생을 건 것 같은 태도를 보고 있으면 웃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리고 이어서 감탄하게 된다. 천연덕스럽게 늘글맞은 '아저씨 개그'를 끊임없이 펼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잘한다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최시원의 이 같은 코믹연기는 그동안 그가 한눈에 띄지 않고 끈질기게 웃음을 연마해온 덕분이다. 인터넷에 '포춘 쿠키'를 치면 연관검색어로 최시원이 바로 뜬다. 바삭한 튀김 과자 안에 행운의 말이 들어있는 중국 포춘 쿠키가 왜 최시원과 연관이 있을까. 백문이 불여일견. 최시원이 스스로를 희화화한 '포춘 쿠키 최시원' 사진 한장만 봐도 그에게 유머 감각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음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드라마에서도 웃겼다. 지난 2007년 MBC TV 2부작 '향단전'을 시작으로, 2010년 SBS TV '오 마이 레이다'와 2012년 SBS TV '드라마의 제왕'을 봤다면 최시원이 연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난 8년간 꾸준히 코미디를 파고 들었음을 알 것이다. 드라마 '아테나'나 '포세이돈'에서 보여준, 제복 입은 각 잡힌 액션 배우의 모습과도 전혀 달랐고 카리스마 넘치는 K팝 가수도 아니었다. 이러한 캐릭터를 거쳤기에 그는 지금 '그녀는 예뻤다'에서 시청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뽕기자'로 변신할 수 있었다. ◇황정음-최시원 커플에 대한 지지 이어져=문제(?)는 최시원이 이처럼 너무 잘하다보니 '그녀는 예뻤다'의 남자 주인공 박서준을 압도한다는 점이다.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대로라면 시청자는 여주인공 김해진이 남자 주인공인 지성준(박서준)과 맺어지길 응원해야하는데, 8회까지 방송된 현재 대다수의 시청자가 최시원이 연기하는 김신혁과 김해진이 맺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신들린 코믹 연기'를 펼치고 있는 황정음과 최시원의 앙상블이 절묘해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한 탓이다. 모리건 몰라도 최시원의 연기력과 그에 대한 시청자의 호응은 제작진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었을 듯 하다. 조연으로서 드라마에 양념만 쳐주면 됐을 역할인데, 최시원은 기대 이상의 호연을 펼치며 황정음과 함께 화제의 중심에 섰다. 김해진을 "잭스~"이라며 능청맞게 부르고, 유치한 장난을 쳐놓고 '할랄랄' 숨 넘어갈 듯 포복절도하는 '뽕기자' 김신혁과 그에 매번 당하면서 이를 가는 김해진의 콤플렉스에 대한 시청자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최시원의 존재감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녀는 예뻤다'의 백미가 황정음이라면 최시원은 코미디.

Table with 4 columns: 05:00, 09:00, 12:00, 18:00. Lists various EBS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00:00, 12:15, 18:00, 23:00. Lists variou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3일 甲子). Lists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박진영, 교복광고 선정성 논란에 전면 수정

JYP 측 "광고 의도 잘못 전달됐다" 사과

가수 박진영과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가 함께 출연한 교복 광고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땀방울을 맞았다. 이들이 출연한 교복업체 스텔룩스의 광고 포스터에 '날씬함으로 한판 붙자', '스커트로 깎아라! 슈딩 스커트', '재킷은 모두 조여라! 코르셋 재킷'이란 문구와 콘셉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 포스터에는 박진영이 선글라스를 낀 채 몸매가 강조된 교복을 입은 트와이스 멤버들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일선 학교에 광고가 나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진영 씨의 스텔룩스 교복 광고에 대한 사회적 견제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학생 대상 광고가 선정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교복 치마를 왜 슈딩 스커트로 줄이고 깎아서 입어야 하나. 교복 재킷을 왜 코르셋처럼 조여서 입어야 하나"라며 "모두 여성 신체의 성적 매력을 두드러지게 하는 옷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입는 교복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날씬함으로 한판 붙자'고 하면서 나온 교복 모델은 여중생, 여고생의 모습이 아니라 교복 패티시 주점이나 톨살롱의 종업원들처럼 보인다"고 강도 높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스텔룩스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광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며 사과하고 지적을 반영해 기존 광고를 수정하고 광고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텔룩스는 "이번 광고는 '편하며 몸에 잘 맞는 교복'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콘셉트였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저해하고, 신체적인 부분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단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JYP도 "이번 광고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광고주와 논의한 끝에 이 지적을 반영해 광고의 전면 수정 및 기존 광고 전면 수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엄태웅,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차

엄태웅과 딸 엄지은이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에서 하차한다. '슈돌'의 연출을 맡은 강봉규 PD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하차하는 것이 맞다"며 "아직 마지막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11월 중 마지막 분량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슈돌'에 합류한 엄태웅 부녀는 약 10개월 만에 하차하게 됐다. 강 PD는 "당분간은 새 가족 합류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영화 촬영 준비와 작품 활동 스케줄 때문에 제작진과 상의 끝에 하차하게 됐다"며 "앞으로 배우로서 작품으로 대중에게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